

일주문

맑고 향기롭게 길상과 장학금 수여식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은 스님은 4월 14일 오후 1시 30분 길상사 내 소강당에서 길상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해수관음 노천석불 봉안 정안법회
성주 지안사 주지 지안 스님은 4월 15일 오전 10시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을 초청, 지안사 경내에서 해수관음보살 정안법회를 봉행한다.

영암 도갑사 복장불사 회향식
영암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4월 7일 도갑사 대웅전 목조탱화 개금불사 및 해탈문의 문수보현보살 복장불사 회향식을 거행했다.

이리불교대학 21기 불교대학 입학식
이리불교대학 학장 덕림 스님은 4월 1일 이리 관음사 큰법당에서 2012년 21기 불교대학 입학식 및 수계법회를 했다.

청도 선농 약사여래불 정안법회
청도 능인사 주지 해동 스님은 4월 1일 종단 소인스님과 지역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농약사여래불 정안법회를 열었다.

부산 영축사 탄파리포체 초청법회
부산 영축사 주지 해성 스님은 4월 1일 울산 간절곶에서 티벳 탄파리포체 초청 국제대법회를 봉행한다.

광진 노인 게이트볼 대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4월 13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제6회 광진게이트볼 대회를 연다.

경주 동국대, 수계대법회 봉행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4월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중국불교협회 명예회장 변환 스님 입적

중국불교협회 명예회장이자 임제종 제44대 전승인인 변환(本煥) 스님이 4월 2일 세랍 106세로 선전 홍법사에서 입적했다.
1930년 23세에 출가한 변환 스님은 1959년 위원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임제종 제44대 전승인이 됐다. 변환 스님의 추모법회는 4월 4일 주석처인 홍법사에서 열렸다.

불교계 선거 공약 '제안'

정치권에 문화정책 내놓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범응 스님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국민의 권리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불교계 쟁점 현안들을 정치권에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범응 스님이 '2012년 양대 선거에 대한 불교문화정책 공약제안'을 발표했다. 범응 스님은 4월 2일 조계사 인근 갤러리 나무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관련법령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25개의 안을 발표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여론화 되었던 사안들로 불교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공약으로 정리했다. 이들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부라도 수용해 1700년 불교문화의 국가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주요 쟁점 현안으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물론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각 교구 본사 등에 책자를 배포한 상태다.

스님은 "이번 공약은 총선보다는 대선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종단과 협의해 공약의 내용들을 좀 더 다듬고 보강해 연말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 전할 터"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에 이기흥 중앙신도회 부회장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단장으로 이기흥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선임됐다. 이 단장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홍보임원, 2010년에는 광주 아시안게임 단장을 맡아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리는 등 다양한 공로를 쌓아 왔다. 이 단장은 이런 국제대회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 런던올림픽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 단장은 "영예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종합 1위 이내, 금메달 10개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준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단장은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장,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을 맡아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중앙신도회 부회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실신한 불자이기도 하다.

특히, 이 단장은 체육인불자연합회 창립과 함께 초대회장 임명돼 대륜선수촌과 올림픽공원에 법당 개원을 이끄는 등 체육인불자의 신심증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1년 4월 불자대상 수상하였으며 삼국 전역을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쾌척한 바 있다. 또한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설립 2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육성을 통한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장애인도 도움 줄 수 있는 존재"

장애인 위한 잔치 여는 이건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과연 장애인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일까? 장애인이 소외 이웃을 돌보며 봉사정신을 기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과 불자들이 주최하는 '우리도 베푸는 마음잔치'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이건설 원장을 만나 행사의 취지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들어봤다.

이 원장(55)은 "장애인은 사회에서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는 존재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주축이 돼 독거노인 50세대, 다문화 가족 15세대 등의 소외 이웃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무료공연을 펼치며 봉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 1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그동안 노인전문병원 연화복지원, 경기북부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복지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의정부불교신도회 부회장, 대한불교 해외자원봉사 선발대상 등 꾸준히 불교계 봉사 활동을 이끌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장애인복지에 취약한 불교계가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는 "불교계는 장애인 복지에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한 상태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진각종 총무원장 주한네팔대사관서 법문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사진)는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후암동 주한네팔대사관에서 '네팔 룸비니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설법한다.



이 법회는 '2012 룸비니 방문의 해'를 맞아 네팔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증진 및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는 진각종과 네팔불교전통의식에 따라 환영의식, 귀명삼보의식, 오계독송, 육자대명왕진언 읊마니반메춤, 네팔발자모임 대표의 환영사, 설법과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한국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법회를 준비한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노빈 법사(주한네팔발자모임 지도법사겸 고문)는 "룸비니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 불자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많이 룸비니를 방문해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신의 신행을 복돋기를 바란다. 이번 법회가 잘 회향돼 우리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고판화박물관 전통판화학교 개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지정문화재(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를 실시한다.

전통판화학교는 인쇄술을 알리기 위해 고판화박물관 소장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및 국제학술대회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 어린이 및 노인·새터민·다문화·군장병을 위한 프로그램, 판화전문가육성프로그램이 주 1회씩 총 40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8월 한중일 목판본 삽화판화전시회와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려사 심향 불교합창단 창단

장흥 청려사(주지 백우)가 '심향 불교합창단'을 창단했다. 청려사는 3월 31일 토요일 청려사 대적광전에서 창단법회를 열었다. 단장 조금자, 지휘자 김승화, 피아노 반주 김윤진 씨 등이 맡았다. 단장 조금자 씨는 "삼계 대승이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여법한 음성공양을 올리고자 한다. 또한 찬불가를 통해 불법 흥포에도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심향(審香)은 제석천을 모시며 기악을 연주하는 음악의 신을 뜻한다.

정혜숙 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점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점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일광도인 ☎ 02) 743-7679
빙의의 시대 저자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송인동 76번지 롯데캐슬 4지동 309호

※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